

- 2026 년 3 월 속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 288/통 204)

3. 시작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가족과 성도들에게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5. 성경읽기: 마가복음 8:27-30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6. 본문의 내용

이 고백이 일어난 장소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곳은 당시 로마 황제(가이사)와 이방 신을 숭배하던 화려한 신전들이 즐비했던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이 가득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시 군중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나 사회 개혁가, 혹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정도로만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적 존재'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주권자이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 수 있듯, 베드로는 '고난 받는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승리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제지하시는데, 이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이 아직 세속적인 승리와 영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7. 나눔

베드로는 화려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내가 바라는 성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사'로서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세상의 화려한 기준(성공, 돈, 승진, 평판 등)이 나를 유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주저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반대로, 작고 사소한 부분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성도'임을 기억하며 행동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눔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9. 주기도문: 다같이

